

학생들 불만 '집주인 무단 확인'

원광대 설문조사 결과 집주인 마스터키 확인... 학생, '집주인과 세입자 배려운동' 전개

익산에서 생활하는 원광대 학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집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집 주인과 세입자 배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8일 시는 지난 3월 원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조사됐지만 그 중에서도 세입

자 양해 없이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쓰러기 무단투기와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쪽의 문제해결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 배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월 플라워' 동아리를 파트너 단체로 선정하고 집주

인과 세입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 하자는 내용의 전단지 제작하기로 했다. 전단지 디자인은 월 플라워가 담당하고 참여 대학생 10여명은 친구, 선·후배, 집주인 등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대학생들이 작업한 디자인 그대로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 대학로 주변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대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월 플라워 동아리 장형국 회장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로 진학해 익산에 살게 됐는데 이번 활동으로 익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며 "앞으로 익산시가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지역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정책을 강화해 원광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새만금개발사업 정책 토론회

군산대학교(총장 박병선)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이 지역출신인 김관영 의원이 몸담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산대학교 박재필 교수의 '새만금복합리조트 특인가 실인가'와 김재구 선임연구원의 '새만금 관광개발의 역할'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미래포럼 이병국 대표(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 개발의 애로점', 군산대학교 건축과 문창호 교수의 '플로팅 건축 방안', 신호균 전JT 대표이사(전 새만금개발청)의 '타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기하 위원의 '새만금매립

과 새만금 관계자의 책임 있는 개발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생태계조성사업 등 여타면제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행 방안, 새만금 개발 방향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돼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유효성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중앙부처 활동상황 보고회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감입준 시장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326개 현안사업에 1조3천777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밝힌 내년도 시의 주요 건의사업은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인증)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35억원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50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입대용지 조성 280억원이다.

또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구축 80억원 ▲새만금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70억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69억원도 국가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청도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60억원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체 제조시설 구축 20억원 ▲수제맥주청주 특화

리 조성 15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25억 5천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속 도시 조성 1억 5천만원(총사업비 60억)도 함께 요구한다.

이처럼 군산시가 목표로 삼은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신규사업 53건, 계속사업 273건 등 총 326건에 1조 3,777억원이다.

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감입준 시장과 해당부서 간부공무원이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동향

검토와 사업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5월말까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부처 설득과 대응논리로 마련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역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공조하고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처에서 미온적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대응논리를 갖춰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내일 공자학원과 국제학술대회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한중관계 연구원은 10일 교내 송산기념관 제1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일대일로와 공유자원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자학원과 2019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은 2016년 원광대학교 공자학원 설립 이래 매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 간

학술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경제체제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를 중심으로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역사와 문화, 언어 지와 사회기반시설, 의약자원 등 총 3개 세션에서 '동북아 공유 자원의 활

용'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순천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가 축사로 자리를 빛낼 예정이며, 한중관계연구원 공동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동북아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신축 건축물

과소신고 일제 조사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이번 달부터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계약 대상인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증축 건물은 취득세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에 추가 공사비와 상·하수도원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누락된 건축비 항목 존재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탈루된 세원이 없는지 조사를 예정이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1차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전병희 세무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었거나 누락된 공사비용이 발생하면 일집시점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안내표지 개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창구 안내표지를 대폭 개선했다.

개선사항은 기존 단일색상의 안내표지가 지방세, 증명명, 여권업무 등 민원유형에 따라 이용이 편리하도록 민원창구별 색상을 부여했으며 많은

여권창구 번호를 세분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민원실안내표지를 강화해 민원인이 보다 쉽게 원하는 민원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북카페, 민원상담실, 수유실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지역아동센터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역아동센터 48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각 지역아동센터의 화재, 자연재난 등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자 안전교육과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안전과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 1단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해 기능보강 사업 등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3단계에서는 20년 이상 노후시설과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

해 미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안전점검은 산발 및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절기는 풍수해와 폭염, 각종 전염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로 집단이용시설은 재난과 식중독 등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패션단지 폐수관로 정비사업 준공

관로 846m 연장 설치, 기업애로사항 해소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해 폐수관로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치공사는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관로 846m를 연장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패션단지 조성단계에서

관로 816m가 설치됐으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어 입주기업 일부는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했고 이달 설치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패션단지에 입주한 모든 기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리 기업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구리, 아연 등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된 물은 단지 내 침전조를 통과해 관로에 유입되며 패션주요리 공동연구개발센터 폐수처리장과 제3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하게 된다.

주요리 집적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이번 사업이 완료돼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